

주거취약계층 위한 ‘어울림플랫폼’ 기공

정읍시, 36억원 투입 2021년 준공

정읍시가 10일 시기동(옛 금강모텔)에서 ‘정읍 시기 어울림플랫폼(행복주택)’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최낙삼 시의회 의장과 임정수 LH전북지역본부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원도심 내 상인회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와 LH가 협업해 추진하는 어울림 플랫폼은 총사업비 36억원(정읍시 15.5, LH 20.5)이 투입돼 네트워크센터(180㎡)와 행복주택(20세대)을 건립하

는 사업이다. 2021년 준공 예정이다.

네트워크센터는 원도심 내 청년창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브랜드 창출과 디자인 개발, 웹페이지 구축 등 청년산업의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노약자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어울림플랫폼은 오랫동안 준비와 계획 기간을 가진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정읍=봉채영 기자

전주시, ‘일제잔재’ 동산동 명칭변경 추진

전주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인 동산동의 명칭변경을 본격화한다.

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최근 동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산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덕진구 ‘동산동’의 명칭은 지난 1907년 미쓰비시 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와사키 하시야(岩崎久彌)가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東山)’을 따 창설한 동산농사주식회사의 전주지점이 위치했던 데서 유래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동산리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동산동 주민 17명과



전주시청 전경.

시의원, 전문가 등 23명으로 동산동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홍보에 착수했다.

동산동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향후 동 명칭 변경에 대한 다양한 주민홍보를 펼치고, 오는 5월 3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봉채영 기자

함평군, 귀농 돕는 ‘체류형지원센터’ 건립

30억 투입, 폐교 등 리모델링

귀농·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 준비시설인 체류형지원센터가 함평에 들어선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최근 추진한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함평군이 최종 선정됐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귀촌 희망자가 1년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면서 농업창업 실습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부담을 해소토록 하는 지원시설이다.

현재 전남에는 유일하게 구례에만 조성되었으며, 지난해 수료한 25가구

가운데 18가구(72%)가 전남으로 귀촌하는 성과를 올려 귀농귀촌인 유치를 역점인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의 기대감도 높다.

함평군은 올해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폐교된 (구)학다리중양초등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하고 체류형 주택 6동, 스마트팜하우스 5동, 개인 텃밭 3300㎡, 영농교육관 1동, 농기계보관소 1동 등을 조성한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체계적인 센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함평을 6차 산업과 고소득 농촌경제의 서남권 거점으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나성주 기자 nsj3983@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연기

와이어로프 미세한 풀림 발견 안전진단팀 구성 합동점검 관광업계 혼란 등 대책마련

전남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 불식과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국내 최장 3.23km(해상 0.82km, 육상 2.41km)의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이 와이어로프의 미세한 풀림현상이 발견되면서 개통이 다음달 3일에서 10월로 5개월 연기됐다.

시는 개통연기에 따른 안전문제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혼란과 시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유달산승강

장 등이 4월말 완료되면 공사과정에서 훼손된 환경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변 환경에 맞춰 조속히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또 케이블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 전까지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용역 의뢰해 안전진단팀을 구성하고, 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와이어로프 제작사가 책임시공할 것과 와이어로프의 제작 및 운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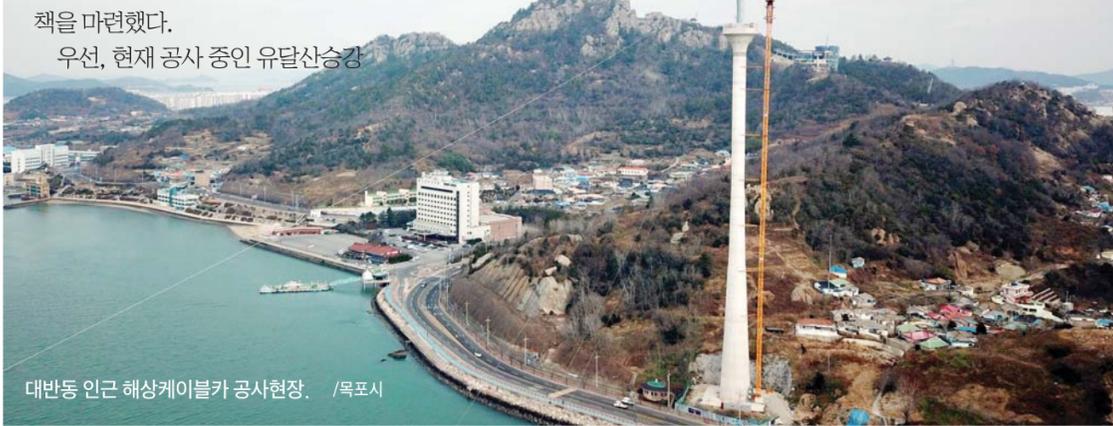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 측과 함께

전국 관광업계에 사과의 글을 포함한 10월 개통계획을 담은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도로 우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측에서는 목포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또는 시민 답송요금 할인 폭 재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개통 연기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행정력을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면서 “케이블카 개통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더 치밀하고 꼼꼼한 협의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원우 기자 wonwoo9700@metroseoul.co.kr



대반동 인근 해상케이블카 공사현장. /목포시

장성군, 기업과 손잡고 ‘경단녀에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장성새일센터, 10개업체와 일촌협약 차별해소 등 여성친화 일터 만들기

장성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장성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장성새일센터는 지난 장성군청에서 장성지역의 여성친화기업 10개 업체와 ‘일촌 협약식’을 체결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적극 채용하고 여성 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여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친화경영에 앞장서는 업체로 장성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국군복지단 광주지원본부,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성은테크, ㈜지호산업, 제이씨피씨, 성산지역아동센터, ㈜크린탑, 성



2019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모유치원, 장성투데이, ㈜오재산업개발 등 10개 업체이다.

참여 업체들은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여 고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장성새일센터는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오영식 장성새일센터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더욱 여성 친화

적인 조직문화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장성새일센터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기업체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그동안 협약업체에 수요실과 탈의실 개선 등 여성환경 개선사업과 여성 인턴 및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4 | 해질 / 19:03

4월 11일 (木) 음력 : 3월 7일

수도권 날씨 5~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6, 동두천 2/16, 가평 0/15, 백령도 5/13, 파주 1/16, 서울 5/15, 양평 2/16, 인천 6/13, 수원 4/15, 용인 4/15, 평택 2/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남, 중형 택시비 2800→3300원 인상

경상남도의 중형 택시요금이 오는 11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2km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요금(15km/h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시계외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된 30%, 심야할증은 현행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된다.

경상남도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적용을 위해 지난달 11일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최종

시계외할증 10% 증가한 30% 거리요금 133m당 100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11일 이후부터 시군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시달렸다.

시군별로 택시요금인상 시행일은 다소 차이가 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그리고 양산의 경우는 11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밀양은 12일 오전 4시, 거제는 12일 0시를 기해 인상된다. /경남=최인택 기자 remark@